

지도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4) -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목회리더십

릭 워렌/ 새들백교회 목사

원리4: 당신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

모든 훌륭한 지도자는 이렇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사람들과 연합한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Come let us rebuild* ("us"에 동그라미 쳐라)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이 문장에 동그라미 치라). 그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들어오지 않았으며, "당신들은 한 무리의 실패자들이군. 당신들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겠어. 90년이 흘렀고 그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때로는 동기를 부여할 때 그들을 만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기 부여를 강화시킨다. 그는 여기서 이방인 전문가의 역할을 맞지 않는다. 그는 "나는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그것이 동기부여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양육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그들을 이해한다고, 즉 당신이 그들의 문제에 공명한다고 느낄 때 자녀들로부터 좀더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 최상의 아이디어는 나의 것이나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라. (계속)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184-19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 목회와신학 홈페이지 - <http://www.durano.com/moksin>